

The 4<sup>th</sup>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제 4 회 세계한국학대회

코리아 붐: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박 철수<sup>1</sup>

2008 년 9 월

---

<sup>1</sup> 일본 구마모토가쿠엔대학 경제학부 교수. 논문의 본버전은 제 4 회 세계한국학대회(the 4<sup>th</sup>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September 21-24, 2008 Seoul Korea)에 발표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며, 21 세기 전환기의 아시아경제에 관한 연구의 일부결과의 초기보고이다. 의견과 코멘트는 환영합니다. 본논문의 인용은 저자의 허락을 필요로 함. 연락: Cheol Soo PARK, Professor, Faculty of Economics, Kumamoto Gakuen University. Oe 2 Chome 5-1, Kumamoto city, 862-8680 Japan. Email: [cspark@kumagaku.ac.jp](mailto:cspark@kumagaku.ac.jp) Tel: 81 96 364-8154. Fax 81 96 372-0702.

# **Korea Boom: Cross Paths of War and Peace**

by

Cheol Soo PARK\*

Kumamoto Gakuen University

September 2008

## Abstract

The study revisits *Korea boom* occurred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that had completely changed the Japan's situation under the Dodge Plan. This article focuses on two aspects of Korea boom in Japan: one is the foreign exchange income deriving from the increase in export and the generation of the special procurements (called *tokuju*) and the other is an invigorating effect of invest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early dawn stage of economic growth in order to remedy the structural weakness revealed during Korean war period.

We described channels through which Korean boom affect on Japanese economy in the dawn stage of economic growth. Korean boom had contributed to create the virtuous mechanism that reversed Japan's vicious circle before the first Asian miracle under the closed economy. It is coincidence that Korean boom had occurred precisely when US aid was being choked off by the Dodge line in Japan. Korea war also provided the momentum that made earlier the time when sovereignty was restored to Japan. It is April 1953, the earlier independence from American occupation.

\*Cheol Soo Park, Professor, Faculty of Economics, Kumamoto Gakuen University. Oe 2 Chome 5-1, Kumamoto city, 862-8680 Japan. Email: cspark@kumagaku.ac.jp Tel: 81 96 364-8154. Fax 81 96 372-0702. This version of the paper is prepared for the 4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September 21-24, 2008, Seoul Korea. This is a part of results from the research project on East Asian Economy in 21th transition. The result of this paper is preliminary so that citation of this paper is recommended to require author's permission. Comments on this paper are very welcomed. DooHwan Choi provided research assistance.

## 1. 들어가기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 (일본어 문헌에서는 조선전쟁, 조선동란등으로 표현)이 발발했다. 한반도의 38도선을 경계로 한 전투는, 처음에는 북한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동월 27일에는 서울을 점령했다. 미국은 즉시 한국방위를 결정해, 국제 연합군의 이름으로 본격적인 반격을 맥아더 원수의 지휘로 개시해, 북한군의 남하로 낙동강선을 저지 인천상륙이후 북진하였고, 중국의 개입으로 전쟁은 고착상태로 들어 가게 되었다.

전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던 일본은 이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연합군으로부터 대량의 특수수요(特需)를 받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판문점에서 조인되었지만, 이 3년간과 휴전후 복구기간에 걸쳐 일본에 지불된 특수 수요의 발생 과 수출증대로 인하여, 패전에서 괴멸상태인 일본의 공업수준이, 거의 전쟁 전 상태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까지 회복하고, 전후 일본부흥에 큰 희생약과 밑거름이 되었다.

한국전쟁 특수와 포스트 특수는, 패전으로 인해 승전국 점령상태라는 정치조건과 더치라인이라는 긴축불황의 경제적 악조건에 직면해있는 일본경제사회의 좋지않은 상태(bad luck)를 상쇄하고 더 나아가 그 것을 능가하는 행운(good luck)을 결과적으로 가져다준 **코리아붐**으로, 이것은 일본에서 전후 최초의 경제한류(戰後最初の 經濟韓流)라고 할수 있는 사회경제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코리아붐은 그당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일본에 행운의 단비와 같이 경제사회 전역을 흠뻑 적시었다. 그후 지면하로 떨어져 있던 잠재성장의 씨가 발아하여, 일찍 맞이한 새벽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기적을 길로 나아가게 된다.

본고에서는, 일본 경제·산업의 부흥은 한국 특수경기의 영향을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전후 고도경제성장이라는 동아시아기적 제 1호(2호 동아시아 기적은 NIES로 칭하여지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의 성장)인 일본의 기적을 이루는데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고, 특히 성장전야와 여명기에, 한국전쟁과 그에 따른 코리아붐의 메카니즘을 규명하는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논문의 구성은, 먼저 전후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상황등의 역사적 배경, 2절에서 한국전쟁과 코리아붐, 3절 특수경기의 특징과 내용을 다루고, 4절 한국전쟁특수와 코리아붐의 경제학적 해석에서는 고도성장개시와 관련하여 성장과급메카니즘을 투자경기, 자본축척, 국제수지 그리고 생산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5절의 코리아붐과 일본국민생활: 소비경기에서는 가계부문의 동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전체를 정리하고 관련 시사점을 향후 연구를 위하여 언급한다.

### 1. 역사적 배경: 패전직후 일본과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상황

전후 특히 패전직후 일본은 승전국인 연합군미국의 정령하에 있었다. 점령기간은 6年8月半 (American Occupation: 1945.8. 15 ~1952. 4.28). 연합군사령관(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s)으로 1945년 8월부터 1951년 4월까지의 맥아더(Douglas MacArthur) 와 1951년 4월부터 1952년 4까지의 리지웨이 사령관(Mathew Ridgway)이 점령기 일본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셈이었다.

미소관계긴장과 중국혁명의 성공과 같은 1949년의 변화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태도와 극동아시아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미일동맹관계의 기반강화를 위한 일본의 회복이 필요했고, 그러한 사명을 주어 미국 투르만 Truman 대통령은 다시 Joseph Dodge 를 동경에 파견하여 제반 정책변화를 실행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재검토하게 하였다.

이렇게 한국전쟁은 근린 일본의 경제정치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중 일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치정세의 변화는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1953년 4월 일본은 독립을 회복한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실질적인 주권독립의 시기가 앞당겨진것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극동정책이 화해와 관용으로 바뀌었고, 일본 집권층의 정책목표도 역코스(reverse course) 라 불리우는 원상복귀추세로 바뀌운 것을 반영한다.

## 2. 한국전쟁 과 코리아붐

한국전쟁의 일본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문헌과 기록은 그 표현과 강조점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일본경제의 재기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심각한 불경기의 일본경제가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더지라인의 긴축정책의 실시에 따라 역경에 직면했던 일본경제는 1950년대에 들어서도 더지라인은 변화가 없었고, 금융완화에도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이라서 본격적인 공황의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 있었다. 그런 경제적 상황이 6월 한국전쟁이 시작되어 사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소위 코리아붐의 방아쇠와 같은 촉발요인은 **특수의 발생과 수출의증대**라 할수 있다.

먼저 특수의 발생 (정의와 구체적 내용은 논문의 2 절에서 설명)을 살펴보자.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특수발생과 특수경기의 일본경제에서 한 역할은 무엇인가? 연합국장병에 지급하는 물자와 서비스의 수요의 성격을 지닌 특수인 까닭에, 그 대가가 주로 달러로 지급되었으므로, 특수에 의한 외화수입이 증가하고, 이것은 국제시장에 대한 수출의 대가로 지급받은 외화수입과 비슷한 효과가 있으나, 그 효과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직접적이고 국제시장에서와 같은 불확실성이 적은 외화수입원이 었다. 한국전쟁의 경제효과는 전쟁으로 동반하는

특수가 발생한것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공업국인 일본에 우선적이고 강하게 파급되고, 나아가 특수의 세계적인 파급으로 인해 일본으로 부터의 수출증대라고 하는 경로를 통하여 일본경제에 호경기를 부여하여 성장에 필요한 자본축적이 가능케 하였다.

다음으로 수입의 증가를 살펴보면, 1950년부터 1951년 일본의 수입액은 65%, 광공업생산은 38% 증가하여, 기업의 수익율이 2.2%로 뛰어 올랐다. 그배경으로는 같은 기간 세계무역액이 36%, 무역량은 10%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 두 변수의 격차는 세계수출단가가 23% 상승했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그당시 더지라인으로 수출보조금이 중단되었던 일본기업은, 코리아붐으로 일본과 세계에 발생한 전쟁특수의 경제환경에서, 생산자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수출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게되었다.

이와 같은 코리아붐으로 촉발된 수출증대와 특수발생에 의해서, 일본의 국제수지수준은 두배를 넘어서게 되었다. 코리아붐으로 인한 국제수지의 급격한 배증은 일본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당시 1949, 1950년에 연간 10억달러를 조금 못미치는 수입도 쉽지않은 일본경제였지만, 수출증가와 특수에 의해서 연 20억달러정도의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수입원재료에 의존하는 주요산업이 강력한 생산확대의욕이 있어도, 외화유동성부족등으로 제약을 받던 상황이 였는데, 코리아붐 이후의 일본경제는 그러한 국제수지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것을 지탱하는 원할한 수입이 가능하게 된것이다. 그당시 일본경제가 직면하고 있었던 저해요인의 하나인 국제수지제약이 해소되어, 원황향 생산원재료수입과 생산확대가 이루어져, 수요의 급작스런 증가 (수요충격)에 대응할수 있게 됨을 뜻한다.

이와 같은 코리아붐은 공황을 우려할 정도의 심한 불경기하의 일본에 다음과 같은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 한국전쟁 발발 -> 코리아붐 -> 특수의 발생에 의한 외화수입 -> 생산확대를 위한 수입원자재의 제약조건의 완화 -> 생산확대 -> 국내특수수요, 해외수요에의 대응 -> 수출증대 -> 외화소득증대 -> 이윤율증대라는 선순환경로가 창출된 것이다.

1951년 일본경제백서는 이러한경기를 “이토헨경기(실경기)” 혹은 “금속경기”라고부르는데, 그것은 그 당시 섬유산업과 금속산업이 가장 큰 호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949년에서 1951년, 몇몇 산업의 자기자본수익율의 증가를 보면, 면방직업 26%(1949)-> 158%(1951), 화학섬유업 32%-> 194%, 철강업 5.4% -> 30%이었다. 이러한 선순환구조창출로 인한 영향은 대기업뿐만아니라, 지방의 중소기업에 까지 미쳤다.

### 3. 특수의 특징과 내역분석

한국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특수의 내역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특수의 정의,

특수의 주요수요자(기관수요자), 특수의 재원, 지불방법 전후경제정책자료연구의 기록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 살펴본다.

### 3.1. 특수의 특징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특수의 특수성과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1)원래, 점령군의 점령비용을 일본측이 모두 부담하고, 점령군은 일본이 부담하는 “전후처리비”에 의해 일본의 조달청을 통하여 물자와 서비스를 조달했던 것이, 한국전쟁 돌발후에는, 한국전쟁의 작전행동전개와 수행을 위해, 미군·연합군 관계기관이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직접 일본내에서 사들이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조달청을 거치지않고 구매하고 달러로 지불하게 되었으므로, 미국의 방위 분담금=달러 지불(미군 예금계정에의 입금)에 의해서 사들일 수 있던 것이다. (2) 미군과 연합군의 장병 및 그 가족의 일본에 있어서의 개인소비분도 조달하게 되었다(이것은 달러를 엔으로 교환하는 「엔세일」에 의해서 조달되어 「엔세일」이라 부름). (3) 한국전쟁과는 직접 관계없지만, 극동 관계의 군사 원조·경제 원조(오키나와를 포함)를 위해, 미국 국방성·MSA 자금등에 의해서 일본내에 있어 사들일 수 있던 것이다.

### 4.2. 특수의 정의와 규모

「특수 수요」라고 하는 말은 일본경제신문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 거기에 따른 일본으로부터의 자재등의 구입에 관계되어, 처음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른바 특수수요란, 좁은의미로는, 한국전쟁의 발생에 수반해 주일미군이 미국정부예산을 가지고 일본국내에서 직접 구매 발주를 실시하는 물자 및 서비스로, 미국 대사관 경제부 조달개발과로부터 매주 발표되는 특수수요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주로, 한국 및 오키나와에 주둔해있는 연합군 유지와 미국정부의 한국민정계획을 위한 물자 및 서비스였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일본에 있어서의 미군 또는 경제협력국, 일본정부 또는 민간업자였다.

또한 넓은 의미의 특수수요의 정의는 한국의 전투용, 본토내 기지의 설비 보강용, 한국의 장비강화용, 한국의 민수용, 오키나와 공군기지 건설용등의 미국에 작전지비에 의한 발주이며, 소량의 일·미 합동 계정에 의한 발주 및 상호 방위 계획비(M.D.A.P.)에 의한 발주를 포함한 (협정의 특수 수요) 이외에, 미국의 동남아시아전용 MDA 원조비에 의한 발주, 유엔 한국구제 계획비(U.N.K.R.A)에 의한 발주도 포함한(광의의 특수 수요) 것이다.

일본통상국자료에 의한 「특수수요」는, 각종의 미군구매기관, 각종의 달러자금을 사용한 각종의 지불방법에 의해, 업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구매하는 것으로 일종의 내국무역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은 「특수 수요」의 가장 광의의 해석이지만, 「특수수요」를 궁극적으로, 달러를 받고, 납입품목이 통관하지않는다고 하는점등 고려하여 광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본연구에서

기본적으로는 광의의 정의를 사용하고, 분석과 해석등 필요에 따라 협의의 정의를 채용하기로 한다.

특수의 규모는 1952 년에 수입액의 40%, 53 년의 수입액의 33%이며, 달러 수입이 되는 특수 및 수출증대에 의한 외화수입은 일본경제가 필요로하는 원활하고 신속한 수입증대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국제수지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였다. 더 나아가 1951 년의 산업연계분석에 의하면 특수의 영향은 전산업 및 수출증대에 의한 간접효과는 자동차산업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미시적인 사례를 보면 철도업종의 제 1 차 합리화계획의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것은 한국전쟁기의 기업이익의 회복이었다. (현대일본경제, “조선전쟁과 일본경제의 회복”, 44-45)

특수수요 수입이 외화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1951 년 26.4%, 52 년 36.8%, 53 년 38.2%로서, 특수경기가 외화부족에 고민하고 있던 당시의 일본과는 지극히 중요한 외화수입원이 되었다. 그결과 외화보유고는 1949 년 12 월말에 2.3 억 달러(GHQ 계산포함), 1951 년말에 9.1 억 달러, 그리고 1952 년말에는 11.4 억 달러를 기록했다.

표 1 특수계약(特需契約) 총액  
(단위: 천 달러)

| 년도   | 달러\$      | 엔円      | 계         |
|------|-----------|---------|-----------|
| 1950 | 191,356   | —       | 191,356   |
| 1951 | 353,640   | —       | 353,640   |
| 1952 | 244,020   | 62,603  | 306,623   |
| 1953 | 328,309   | 115,554 | 443,863   |
| 합계   | 1,117,325 | 178,157 | 1,295,482 |

출처: 경제심의청조사부통계과  
「특수에 관한 통계」 (1954)

표 2 특수계약(特需契約)의 구분 : 물자와 서비스  
(단위: 천 달러)

| 년도   | 구분   | 달러     | 엔円     | 계      |
|------|------|--------|--------|--------|
| 1950 | 물자物資 | 197327 | —      | 127327 |
|      | 서비스  | 64029  | —      | 64029  |
| 1951 | 물자   | 254506 | —      | 254506 |
|      | 서비스  | 99134  | —      | 99134  |
| 1952 | 물자   | 165961 | 19982  | 185943 |
|      | 서비스  | 78059  | 42621  | 120680 |
| 1953 | 물자   | 210274 | 50520  | 260794 |
|      | 서비스  | 118035 | 65034  | 183069 |
| 합계   | 물자   | 758068 | 70502  | 828570 |
|      | 서비스  | 359257 | 107655 | 466912 |

또한, 특수발생으로 인한 외화수입액이 1951 년 5.9 억달러, 1952, 53 년 8 억달러이상에 달했다는 사실으로 부터, 1951, 52, 53 년의 수출은 년평균 13 억달러임을 고려한다면, 특수 수요의 발생이 당시 일본경제에서 얼마나 거대한 임시수입을 야기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 4. 한국전쟁특수와 코리아붐의 경제학적 해석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본과 국제경제에서의 코리아붐은 고도성장개시 전야의 일본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비쳤는가? 특수발생, 투자경기, 자본축적,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과급메카니즘을 잠깨우는 역할을 어떻게 하였는가?

한국에서 발발한 전쟁과 그로 인한 특수가 심각한 덩치불황상태에 있던 일본경제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코리아붐이 일본경제의 초기단계에 미친 성장메카니즘을 살펴본다. 표준적인 경제이론에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혹은 과급경로 크게 자본축적, 노동력, 인적자본축적 그리고 효율성(전요소생산성)을 들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이후 코리아붐으로 인한 (1) 자본축적의 증가 (2) 생산성향상으로 경쟁성장의 초기조건이 급속히 향상되어 성장개시의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그후 고도경제성장이 개시된 것이다. 더 나아가 성장개시의 촉진요인을 파인انس등 금융자본측면에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자본축적, 투자, 그리고 국민저축의 관계에서 볼때, (1) 수출의 증대 (2) 특수승수효과에의해 일본의 국제수지가 2 배 증가한 것으로 전쟁전 그리고 전쟁중 소위 폐쇄경제에 상태에 있던 일본경제가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자의 타의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국제개방경제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1945,1950년에는 연간수입 10 억달러가 조금 못되는 수준이었던것이 수출증대와 특수효과에 의해 년 20 억달러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특수와 수출에 관련된 부문에 있어 기업부문의 **이윤율**의 증대되었다. 수입의 급증으로 판매가격(수출가격)이 앙등하였으나, 그것에 비해 기초재료의 수입가격의 상승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임금비용도 저하된 경제환경에서, 조업율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기업의 이윤율이 상승하였다. 수출의 증가로 외화증가의 기업이윤의 증가등으로 늘어난 부을 이용한 생산성향상과 효율성증대를 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을 계기로 발생한 특수와 수출증대, 그로 인한 부의 증대가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진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전쟁으로 노정된 일본경제의 구조적 약점이 그것이다. 코리아붐으로 수출수요가 급증하여도 일본산업은 충분이 그 수요에 대응하지 못했다. 전쟁중 전후의 장기간에 걸친 공백기가 있어 일본기술이 뒤떨어 졌다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거시경제적으로는 한국전쟁직후 물가상승과 세계무역비중의 저하등이 구조적 약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력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나아가 일본과 미국간의 동기(목적, 이해)가 일치된 시점에서 한국전쟁-> 특수발생, 수출증대-> 외화 획득증대, 기업이윤증가-> 투자증가 -> 자본축적증가 -> 스톡으로서 부의 증가 -> 전생산성 효율향상의 메카니즘으로 특징지워지는 경제과급경로가 형성되었다고 해석할수 있다.

이상의 설명을 요약하면, “투자경기” (그당시 생산확대를 위한 설비투자가 급증한것을 특징지우는 기업부문이 주도한 호황을 투자경기라 한다)로 인한



투자증대와 그로 인한 자본축척의 증대라는 생산요소 스톡의 증대에 의한 성장에 더하여, 이윤율의 증가를 생산성 향상으로 활용하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결정적 계기로 전환시켜 (구체적으로는 일련의 합리화정책에로의 원만한 이행), 결과적으로 전요소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경제전체적인 효율성의 향상으로 까지 이끌어 낸 것이다. 이로서 자본축척의 증가에 기본을 둔 성장의 지속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효율성과 기술력에 바탕을 둔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틀 (1990년대 장기 불황으로 잠재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전요소생산성저하가 지적되긴 했지만)을 마련한 것이다.

## 5. 코리아붐과 일본국민생활: 소비경기

특수경기는 기업부문뿐만 아니라 소비자 가계부문에 단비처럼 그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3년째인 1952년에 들어오면, 일본국민생활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실질소비지출이 17.5%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등, 한국전쟁이 교착상태로 빠져 생산과 수출이 주춤하는 동안에, 이러한 **가계부문의 소비구매력**이 경기를 지탱하게 했다. 이와 같이 1952년 53년은 “소비경기”로 불리울 정도의 경제가 붐이 었다. 예를 들면, 의복소비등과 같은 섬유소비의 확대, 가구와 가전용 가전제품의 지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당시 인기상품은 라디오, 미싱, 그리고 소형오토바이인 스쿠타등 이었다.

당시의 가계는 지금과 비교해보면, 아직 곤란한 상태였다. 도시근로자세대의 엔겔계수 49%로써, 전전의 40%과 1975년의 3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가계수입도 패전직후 곤경스런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저축율이 4.6% (1975년 22%)에 지나지않았다. 이는 그당시 가계의 경제적여건이 자본축척으로 이어지는 기업부문의 설비투자를 뒤받침해주는 국내저축을 통한 자본조달의 공급원으로서의 기능 (물론 은행이나 금융등 금융부문의 발달등 제도적여건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고려않음)이 그당시에는 미약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 6.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Dodge 계획하의 일본제반 상황을 완전하게 바꾸었었던 한국전쟁 동안 그리고 휴전 이후기간에 걸쳐 일어난 코리아붐을 재검토했다. 코리아붐의 2가지측면을 살펴 보았다. 하나는 수출의 증가와 특수발생에서 파생하는 외국환소득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설비투자(자본축척 증가)와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이다. 후자는 한국전쟁 기간 도중 드러난 일본경제의 구조상 약점을 보완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화와 거시적생산성 (혹은 전요소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경제성장의 새벽단계에 있는 일본경제에 한국전쟁으로 인한 코리아붐이 일본경제에 미친 파급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히는 것은, 전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과 해방과 독립후 새로운 진로와 대일관계를 모색해 가는 동아시아경제를 이해하는데에도 중요하다. 코리아붐은 공황을 우려할 정도의 심한 불경기하의 일본에 다음과 같은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전쟁 발발 -> 코리아붐 -> 특수외환의 발생에 의한 외화수입 -> 생산확대를 위한 수입원자재의 제약조건의 완화 -> 생산확대 -> 국내특수수요, 해외수요에의 대응 -> 수출증대 -> 외화소득증대 -> 이윤율증대라는 선순환경로가 창출된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다시 말하면, 투자경기로 인한 투자증대와 그로 인한 자본축적의 증대라는 생산요소의 스톡의증대에 의한 성장에 더하여, 이윤율의 증가를 생산성 향상으로 활용하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결정적 계기로 전환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전체적인 효율성향상(전요소생산성 증가)으로 까지 이끌어 낸것이다. 이로서 자본축적의 증가에 기반을 둔 성장의 지속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효율성과 기술력에 바탕을 둔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부문이외에 가계부문에다 코리아붐이 영향을 미쳐 소비경기로 일본국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한국전쟁이 교착상태 일때의 일본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전쟁을 분기로 하는 한국과 일본의 상황과 그후 갈림길의 모습은 역사의 행불행이 교차하는 의미에서 매우 대조적이라 할수 있다. 패전후 폐쇄경제와 다른 없는 일본의 상황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한국전쟁과 그에 따른 코리아붐은, 첫번째 아시아 기적을 일으키는 전야에서 일본경제가 직면한 악순환을 반전시키는데에 결정적인 공헌하였다. 미국원조가 끊기고 더지라인하의 일본경제는 거의 질식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바로 그때, 코리아붐이 정확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역사적 일치이며, 한국과 근린국 일본은 전쟁과 평화의 매우 상반된 길을 가게 된다. 해방후 혼란과 전쟁의 길로 치닫고 이념을 달리하는 정권간의 대립, 동서냉전의 대리전을 치루며, 동족상살과 대규모 이산가족의 비극에 처한 한국과 한반도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게, 패전직후 연합군의 점령하에 있었던 일본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점령상태로 부터 독립을 앞당기고(1953년 4월), 나아가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변화의 바람을 타고 고도성장이라는 아시아기적의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본연구에서 정리하고 기술한 사실과 그로부터 도출된 몇가지 결론들은 향후 정치경제학적 틀과 관점에서 엄밀하게 재검증해야 하는 몇가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만일 특수와 코리아붐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1951년에 12%였던 성장률은 4.9%에서 9.4%으로 저하했을 것이라는 추정과 주장도 있다 (요네자와 1994). 더지라인의 디플레이션효과에 의해서 곤란한 직면에 처해있던 일본경제를 부흥의 궤도에 올리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2차세계대전과 패전으로 일본경제가 잠재적 성장과 장기적인추세(정상상태)로 부터 벗어난 궤리를 코리아붐으로 촉발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예상보다 조기에 축소 회복한 것을 의미한다.

탈냉전 이후에도, 전쟁과 위기상황이 예상치 않은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 범위와 깊이가 확대 심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상반되지만 매우 밀접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흐름들을 동시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두가지 흐름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전환은 가속확대 될 것이다. 전쟁, 테러, 그리고 환경문제등과 같은 위기와 도전이 그 하나의 흐름이고, 글로벌화, 정보지식금융화등으로 경제활동의 프론티어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기회와 협력모색의 흐름이 또 다른 흐름이 있다. 이러한 전환기의 21 세기 초두에서, 동아시아 기적의 전야라 할수 있는 1950 년대에 일어난 한국전쟁과 코리아붐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